

흥륜사 탑돌이의 양상과 배경

The aspects and background of Circling the pagoda of Heungnyunsa Temple

저자 (Authors)	김영준 Kim Yongjoon
출처 (Source)	민속학연구 , (46), 2020.6, 35-56 (22 pages)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46), 2020.6, 35-56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1637
APA Style	김영준 (2020). 흥륜사 탑돌이의 양상과 배경. 민속학연구, (46), 35-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0 13: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흥륜사 탐돌이의 양상과 배경

김 영 준 (인하대학교 강사)

1. 서론
2. 탐돌이의 변화와 전래
3. 탐돌이의 양상
4. 탐돌이의 배경
5. 결론

1. 머리말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면서 신라는 빠르게 불교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교 의식들이 신라의 종교 생활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신라의 전통신앙과 결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신라의 종교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은 풍습 중 하나가 탑돌이 풍습이다. 이러한 탑돌이 풍습은 후술하겠지만 『삼국유사』 「감통」 〈김현감호(金現感虎)〉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2월 8일~2월 15일에 벌어지는 세시풍속으로서 행해졌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세시풍속으로 행해지는 탑돌이는 흥륜사에서 벌어졌다고 하여 탑돌이의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탑돌이는 일반적인 불교의 탑돌이와는 다르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탑돌이가 벌어지는 흥륜사는 신라의 전통신앙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탑돌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연구되어졌다. 대부분은 한국의 탑돌이 민속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¹⁾ 박은애의 경우처럼 『삼국유사』 「김현감호」에 보이는 신라의 탑돌이 풍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²⁾ 이러한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교 풍습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은애는 신라의 탑돌이는 불탑을 돌면서 부처를 경외하는 의식이었는데 8세기 초반에 시작하여 8세기 후반에 이르면 대중화된다고 보고 있다.³⁾ 또한 염중섭은 통일신라시대에 탑돌이가 세시풍속이 되었다는 것은 승려에 의한 종교적인 부분과 전문가의 연희적인 부분이 가미된 문화제전이라고 보았고,⁴⁾ 이철현은 신라시대 젊은 남녀들이 밤늦도록 탑돌이를 한 것은 불교의례인 탑돌이가 횡수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신앙형태로 변한 것이며, 김현이 탑돌이를 정성껏하여 부처님이 감응하여 보답했다는 내용에서 탑돌이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⁵⁾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신라의 탑돌이를 대중화된 불교 풍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에 벌어진 탑돌이가 흥륜사에서 벌어진 점과 흥륜사가 신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불교사찰이면서 신라 전통신앙의 성소인 것으로 추정되는 천경림에 만들어진 점 등을 생각해보는다면 흥륜사에서 벌어진 대중적 탑돌이는 단순한 불교 풍습

1) 김준오, 천득염,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22, 2011; 이철현, 「월정사 탑돌이의 전승과 현재」, 『한국선학』 37, 한국선학회, 2014; 염중섭, 「불교의 탑돌이 기원과 한국적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2) 박은애,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 條에 나타나는 신라 탑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3) 박은애, 앞의 논문, 132쪽.

4) 염중섭, 「불교의 탑돌이 기원과 한국적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78쪽.

5) 이철현, 「월정사 탑돌이의 전승과 현재」, 『한국선학』 37, 한국선학회, 2014, 183쪽.

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⁶⁾ 이러한 점을 통해 흥륜사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졌던 신라의 탐돌이는 단순한 불교 풍습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신라의 전통신앙과 관련된 풍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탐돌이 중에서 흥륜사에서 벌어졌던 탐돌이를 신라의 종교적 배경, 특히 신라의 전통신앙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탐돌이의 변화와 전래

흥륜사의 탐돌이는 다음의 『삼국유사』 김현감호 설화에 보이고 있다.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을 당하면 초8일로부터 15일까지 수도의 남녀가 다투어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행하였다. 원성왕대에 낭군 김현이 밤 깊어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한 처녀가 또한 염불을 하고 따라 돌 때 서로 알게 되어 추파를 던지더니 돌기를 마치고 으스스한 곳으로 이끌고 가서 정을 통하였다. 처녀가 돌아갈 때에 김현이 따라가니, 처녀가 사양하고 거절하였으나 억지로 따라갔다. … 김현이 이미 등용되어 서천변(西川邊)에 절을 짓고 호원사(虎願寺)라 이름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론하여 범의 저승길을 축복하여 그 살신성기(殺身成己)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김현이 죽을 때에 깊이 전에 있었던 일의 기이함을 느껴서 붓으로 적어 전하니 세상에서 비로소 알았다. 이 때문에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일컬어 온다.⁷⁾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설화가 『대동운부군옥』 「호원」에도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8일부터 15일까지 도성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 탐을 돌면서 복을 비는 모임을 하였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총각이 밤이 깊어 홀로 돌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따라 돌았다. … 곧 김현이 찬 칼을 취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졌는데, 바로 호랑이었다. 김현이 등용되고 나서 서천가에 절을 세우고 ‘호원사’ 라고 했다.(최치원, 『신라 수이전』)⁸⁾

6) 『삼국유사』에서는 흥륜사에서 벌어졌던 탐돌이가 소개되고 있어 기록만 보면 흥륜사에서만 탐돌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에 흥륜사에서만 탐돌이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흥륜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에서 탐돌이가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신라시대 다른 사찰에서 벌어지는 탐돌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흥륜사에서 벌어졌던 탐돌이만 남아 있고 흥륜사가 위치한 천경림이라는 곳이 전통신앙의 성소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흥륜사의 탐돌이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7) 『삼국유사』 「감동」 김현감호(金現感虎). “新羅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遊興輪寺之殿塔爲福會。元聖王代。有郎君金現者，夜深獨處不息，有一處女，念佛隨遊，相感而目送之，遊畢，引入屏處通焉。女將還，現從之，女辭拒而強隨之。… 現既登庸，創寺於西川邊，號虎願寺，常講梵網經，以導虎之冥遊，亦報其殺身成己之恩。現臨卒，深感前事之異，乃筆成傳，俗始聞知，因名論虎林，稱于今。”

8) 『대동운부군옥』 권15 「거성」 원자운(願字韻). “新羅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都人士女，競遊興輪寺爲福會。元聖王代。有郎君金現者，夜深獨處不息，有一處女，隨遊現。… 現既登庸，創寺於西川邊，號虎願寺。[殊異傳]”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운부군옥』의 「호원(虎願)」은 『삼국유사』의 「김현감호」와 똑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거를 『수이전』으로 밝히고 있어 「김현감호」역시 출처가 『수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김현감호조의 설화는 흥륜사에 대한 연기설화가 아니고 호원사에 대한 연기설화이다. 그래서 설화 내용은 흥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그러나 김현감호설화의 계기가 된 것은 흥륜사의 탑돌이로서 간접적으로 『삼국유사』의 김현감호설화와 흥륜사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흥륜사의 탑돌이의 방식이나 성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흥륜사의 탑돌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탑돌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라에는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탑돌이의 유래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인도의 장례법은 기본적으로 화장(火葬)이었으며 특별히 기억하고 기릴 대상에 한해서만 탑을 만들어 추모하였다. 대표적으로 인도 바이살리를 대표하는 4대 탑 중 하나인 다자탑의 경우 많은 아들을 둔 여인을 기리는 추모탑이었다.⁹⁾ 이러한 탑을 이용한 인도의 추모방법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불탑을 만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치루며 시신을 화장(火葬)한 후에 사리는 8등분되어 여덟지역에 각각 사리탑으로 조성된다.¹⁰⁾ 이것이 불탑의 시작이 된 것이다. 나중에 병탑, 회탑이 추가되었고 아소카왕때는 8만 4천개의 탑이 만들어졌다고 한다.¹¹⁾ 이후 불탑은 불교의 대표적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태를 가진 조상(造像)행위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불탑의 신앙적 위상은 간다라 미술과 대승불교에 의해 불상이 새로운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도 떨어지지 않고 불상과 동급의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된다.¹²⁾

원래 불탑승배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재가신자가 하는 일이지 출가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한다.¹³⁾ 특히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 시대까지 전해오던 불교의 계율에서는 출가한 불탑승배는 출가한 비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탑과 불교 교단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¹⁴⁾ 이는 출가의 목적이 석가모니 부처를

9) 염중섭, 앞의 논문, 2017, 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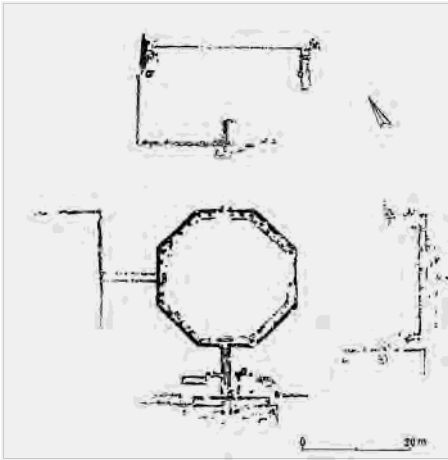
10) 우인보, 『탑과 신앙』, 도서출판 해조음, 2013, 47-48쪽.

11) 아소카왕이 8만 4천개의 탑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불교 숫자의 상징체계에서 4는 붓다에 의한 만수의 의미를 가진 대표적 글자이고 8은 4의 배수로서 두 숫자를 쓰면서 '더 할 수 없는 최상의' 혹은 '보다 완전함'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염중섭, 「불교 숫자의 상징성 고찰」, 『종교연구』 55, 2009, 231쪽~244쪽) 그렇기 때문에 '8만 4천개'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상징적 숫자로 생각된다.

수명, 많은 대중, 길(吉)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우인보, 위의 책, 52-57쪽.)

12) 염중섭, 앞의 논문, 2017, 36-37쪽.

13) 中村元 저/金知晔 역. 『불타의 세계』, 김영사, 2016, 356쪽.



〈그림 1〉 청암리사지 주요부 실측도

송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수행을 통해 아라한 혹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불탑의 송배가 널리 퍼지고 대승불교 운동의 전개, 교단의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한 생각의 변화 등을 통해 결국은 출가한 승가 집단도 불탑을 송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⁵⁾ 이후 이러한 불탑 신앙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의하면 1세기경 후한 명제 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인 B.C. 2세기 말 전한시대에 서역경역의 결과로 서역인들에 의해 중국에 서서히 불교가 전해진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¹⁶⁾ 특히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역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문화는 서역남로 지역에서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원건축의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다.¹⁷⁾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탑은 고층누각형태인 기단부와 탑신부를 만들어 중국적으로 변화하게 된다.¹⁸⁾ 이러한 중국의 불탑신앙을 살펴보면 사상적으로는 인도의 불탑신앙이 내생적인 것이었다면 중국에서는 현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¹⁹⁾ 이렇게 현세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중국인들의 현실중심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⁰⁾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는 시기가 5호 16국시대~남북조시대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당시 혼란한 시대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의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한국에서도 불탑이 세워지고 그에 따른 불탑 신앙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탑돌이와 같은 불탑 신앙은 『삼국유사』를 통해 신라의 경우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375년에 초문사와 아불란사가 세워졌으며 393년에는 광개토왕에 의해 평양에 9개의 사찰이 만들어졌고, 498년에는 평양에 금강사가 만들어졌다.²¹⁾ 이러한 기록에 보이는 사찰들에서 탑의 유무(有無)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

14) 우인보, 앞의 책, 136쪽.
 15) 우인보, 앞의 책, 137쪽.
 16) 천득염·최정미·염승훈·김소영,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심미안, 2018, 303쪽.
 17) 천득염·최정미·염승훈·김소영, 앞의 책, 2018, 304쪽.
 18) 천득염·최정미·염승훈·김소영, 앞의 책, 2018, 304쪽.
 19) 우인보, 앞의 책, 145쪽.
 20) 우인보, 앞의 책, 145쪽.
 2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2년 8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文咨王) 7년 7월

만 1938년과 1939년에 발굴조사된 연대 미상의 청암리사지(淸岩里寺址)에서 중심부에 8각형의 탑지(塔址)가 발견된 점을 보면 초기 사찰들에도 이와 유사한 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또한 백제의 경우 『주서』 이역열전 백제에서 “중과 비구니, 절, 탑은 매우 많으나, 도사(道士)는 없다.”²³⁾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탑이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탑돌이와 같은 불탑에 대한 신앙 역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 및 백제의 탑돌이 혹은 불탑 신앙은 추정만 할 뿐 그 실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경우, 527년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이후 흥륜사를 비롯한 불교 사찰들을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찰의 건립과 함께 석탑이 주가 되는 불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신라에서 탑돌이가 시작된 시점은 527년 이후로 생각된다. 그리고 흥륜사에서 탑돌이가 시작된 것도 대략 이 시기로 추정된다.

3. 탑돌이의 양상

1) 방식

이러한 탑돌이를 『삼국유사』 「김현감호(金現感虎)」에서는 “복회(福會)”라고 부르고 있다. 탑돌이를 “복회(福會)”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박은애는 “『유행경』에서 설해진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불탑이 세워졌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탑에 예배하여 그 공덕으로 무량한 복을 얻게 되었다. 신라에서도 부처님의 탄생 및 열반 시기를 기념하여 2월 8일부터 복회를 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²⁴⁾ 또한 염중섭은 “탑돌이의 명칭은 복회라는 것이는데 이는 복을 쌓는 또는 짓는 모양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²⁵⁾

그러나 다음의 기록들을 보면 복회라는 말이 탑돌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조부모와 두 형제를 위해 승려들을 청하여 크게 복회(福會)를 열었다.²⁶⁾

파라아질다(婆羅阿迭多)[당나라 말로 유일(幼日)]가 왕위를 잇자 동북쪽에 가람을 건설하고 일이

22) 청암리사지는 498년에 만들어진 금강사터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그림 1은 「고구려 팔각형건물지(八角形建物址)에 대한 연구」(이강근, 『선사와 고대』 23, 한국고대학회, 2005) 26쪽의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금강사터 주요부 실측도”라고 했다. 하지만 금강사터라는 곳이 청암리 사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청암리사지 주요부 실측도”라고 고쳐 썼음을 밝혀둔다.

23) 『周書』 「異域列傳」 百濟.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24) 박은애,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條에 나타나는 신라 탑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11, 139쪽.

25) 염중섭, 앞의 논문, 2017, 171쪽.

26) 『태평광기』 권377 재생3 조태. “乃為祖父母二弟延請僧衆, 大設福會.”

끝난 후에 복회(福會)를 열어 축하했다.²⁷⁾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복회는 탑돌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 법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돌이는 본래 고대 인도에서 고귀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경법을 불교의식에서 그대로 따른 것으로 시계방향으로 3바퀴 또는 9바퀴, 108바퀴를 도는 행위가 불탑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²⁸⁾ 또한 인도에서는 경배자가 동쪽의 문을 통하여 경내에 들어오면 경배를 위한 의식으로 요도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도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태양이 하늘을 지나는 궤적을 의미하며 이는 불교이전의 태양신화나 태양승배에서 후에 차용된 것으로 부처의 정신적 행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돌이를 복회라고 부르게 된 것은 탑돌이를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毗尼日用切要香乳記』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위경(埤謁經) 중간에 이르기를 “꽃을 뿌리고 향을 태우며 등을 밝히고 예배하는 것이 공양이다. 탑을 돌면 어떤 복을 얻겠습니까? 부처가 말씀하시기를 5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후세에 단정하고 잘생긴 모습을 얻는다. 둘째는 음성이 좋다. 셋째는 천상에 태어난다. 넷째는 왕가에 태어난다. 다섯째는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였다.³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탑돌이를 통해 5가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라의 탑돌이를 복회라고 부른 것도 본래는 앞의 5가지 복을 얻기 위한 불교의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탑돌이는 연등회와도 관련이 있다. 연등회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김현감호(金現感虎)」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고려 후기 최자의 『보한집』의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변산(邊山)에 한 노숙(老宿)³¹⁾이 있었는데 그가 들려 준 얘기는 이러했다. 지난날 고창현(高敞縣) 사람이 연등회(燃燈會)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참관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한

27) 『대당서역기』 권9 마가타국 하. “婆羅阿迭多[唐言幼日]王之嗣位也。次此東北又建伽藍，功成事畢，福會稱慶.”
28) 김준오, 천득염,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22, 2011, 48~49쪽.
29) 김준오, 천득염, 앞의 논문, 2011, 42쪽.
30) 『毗尼日用切要香乳記』 권하. “埤謁經中間云，散花燒香燃燈禮拜，是爲供養。旋繞得何等福，佛言有五種福，一後世得端正好色，二得好音聲，三得生天上，四生王侯家，五得泥洹道.”
31) 지식이 많은 승려

심상치 않은 소년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봐도 아무도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했다. 연등회가 파하자 그 사람이 소년의 뒤를 밟아 산기슭에까지 따라가니 소년이 말하기를, “저를 따라 오지 마십시오. 저의 집이 누추하여 감히 손님을 맞아 묵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 … 뒤에 듣기를 일엄사(日嚴寺)의 대사가 비밀히 전수한 주문을 닦아 자신의 법력(法力)을 더욱 크게 함으로써 날로 사람들을 감복(感服)시키다가 왕명을 받들어 경기(京畿) 안의 어느 절에 부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살펴보니 곧 지난날의 그 사미승이었다. 이 말은 매우 괴이하고 허탄(虛誕)한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참언(讖言)에 호승(虎僧)의 설이 있는데 이는 오직 일엄사(日嚴師)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한 것은 또한 믿기 어렵다.³²⁾

위의 기록은 내용 면에서 『삼국유사』 「김현감호」와 매우 유사하다. 『삼국유사』 「김현감호」에서는 주인공이 여자를 따라 호랑이 굴로 들어는데, 『보한집』에서는 소년을 따라 노숙(老宿)이 산기슭까지 따라가며 이후의 사건전개 역시 비슷하다. 그러나 「김현감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경주이지만 『보한집』에서는 변산 즉 지금의 부안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두 설화에서 주목할 점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가 『삼국유사』 「김현감호」와 앞선 『대동운부군옥』 「호원」에서는 2월 8일에서 2월 15일까지 벌어진 복회라고 불리는 탑돌이 행사이고 『보한집』에서는 연등회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신라의 탑돌이 역시 연등회 기간에 벌어진 것이며 신라에서는 상원연등회 말고도 2월에 연등회가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고려의 경우 1월 15일에 벌어지던 연등회는 고려 성종 때에 잠시 없어졌다가 현종 때 부활하게 되는데 현종 2년 이후로 의례적으로 2월 보름에 벌어지게 된다.³⁴⁾ 따라서 『보한집』의 연등회도 2월 보름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보면 『삼국유사』와 『보한집』이 모두 고려 후기의 책이지만 출처 상 「김현감호」의 내용이 원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복회는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연등회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불교행사에 있어서 연등회는 탑돌이 의식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한다.³⁵⁾ 그렇기 때문에 『보한집』의 자료를 통해서 『삼국유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탑돌이를 하면서 연등회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흥륜사의 탑돌이가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탑돌이는 일반적으로 3번 도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3번 도는 행위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다.

32) 『보한집』 하권. “邊山有一老宿, 自言, 往時聞高敞縣人設燃燈會, 往觀焉. 有一少年異於尋常者, 問諸左右, 皆曰, 不矢靖佳之子. 及罷去, 踵其後追至于山麓, 少年告曰, 莫我追, … 後聞日嚴寺師修祕呪, 以加持力日服人, 承命赴畿內蘭若. 師往省之, 乃向沙彌也. 此言兌甚怪誕, 世謂識有虎僧之說, 惟日嚴師當之, 此亦難憑.”

33) 인용된 『보한집』 하편의 내용과 『삼국유사』 「김현감호」의 내용은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서 상당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에서 파생되어 나왔거나 한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변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4)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2월 정사

35) 김준오, 천득염, 앞의 논문, 54쪽.

『오계경』에서 이르기 “탑을 3번 도는 것은 3가지 존귀한 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첫째는 불(佛)이고 둘째는 법(法)이며 셋째는 승(僧)이다. 또한 3가지 독을 생각에서 없애는 것이니 첫째는 탐욕이고 둘째는 성내는 것이며 셋째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삼천위의경』에서 이르기 “탑을 도는 것에는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머리를 낮춰 땅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벌레를 밟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탑이 있는 땅에 침을 뱉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람들과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⁶⁾

『법원주림』권50 선요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탑을 도는 것은 불(佛)·법(法)·승(僧)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탑돌이를 할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유사』 「김현감호」에서 탑돌이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나 중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했다면 위의 『법원주림』에서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3번 했을 수 있으며 5가지 방법을 준수했을 수 있다.

특히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보면 신라시대 탑돌이의 방식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개정보살이여, 이것이 근본 다라니 주문이니라. 만일 이 법을 행하려거든 초파일이나 13일이나 14일이나 15일에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77바퀴를 돌면서 이 다라니를 또한 77번 송(誦)하고, 단을 만들어 위를 깨끗이 하고 이 다라니 일흔일곱 벌(本)을 베껴 쓰되,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라니를 베껴 쓰는 사람에게 향과 꽃과 음식과 의복을 이바지하고, 묵묵하고 향을 바르고 향을 풍기어 공양하며, 혹은 7보로 보시하고 능력껏 보시할 것이니라. 쓴 주문은 탑 속에 넣고 그 탑에 공양하며, 혹은 진흙으로 작은 탑 77기를 만들고 주문 한 벌씩을 탑 속에 넣어 공양할 것이니라. …”³⁷⁾

위 기록은 신라시대 만들어진 석가탑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신라시대 탑돌이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⁸⁾ 특히 위의 기록중에서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77바퀴를 돌면서 이 다라니를 또한 77번 송(誦)하고”라는 구절을 보면 신라시대 탑돌이 방식은 오른쪽으로 77번 돌면서 다라니경을 77번 송하는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흥륜사

36) 五戒經云，旋塔三匝者，表敬三尊，一佛，二法，三僧，亦念滅三毒，一貪，二瞋，三癡。又三千威儀云，遶塔有五事，一低頭視地，二不得蹈蟲，三不得左右顧視，四不得唾塔前地上，五不得中住與人語。
37) 『무구정광다라니경』. “佛言，除蓋障，此是根本陀羅尼呪。若欲作此法者，當於月八日，或十三日，或十四日，或十五日，右繞舍利塔滿七十七匝，誦此陀羅尼亦七十七遍，應當作壇於上護淨，書寫此呪滿七十七本，尊重法故於書寫人，以香花飲食淨衣，洗浴塗熏香而為供養，或施七寶，或隨力施。當持呪本置於塔中供養此塔，或作小泥塔滿足七十七，各以一本置於塔中而興供養如法作已。”
38) 물론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신라인들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불탑안에 넣었다는 것은 신라인들이 이 경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구정광다라니경』에서 보이는 방법으로 탑돌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에서 벌어진 탑돌이도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시기

흥륜사의 탑돌이는 2월 8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2월 8일은 『형초세시기』 및 『요사』 「세시잡의」에 의하면 부처의 탄신일이며 2월 15일은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부처가 열반에 들어간 열반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날짜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에는 음력 2월 8일을 부처의 출가일로 삼고 있으며 2월 15일은 열반일로 고정되고 있다. 이처럼 부처의 탄생·출가·입멸에 관한 날들이 모두 음력 2월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음력 2월 특히 2월 8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반열반경』에서 2월이 춘양(春陽)의 달이라 만물이 생장하며 이때 중생이 상상(常想)을 많이 하므로 이와 같은 마음(常心)을 깨뜨리기 위해 모든 법은 다 무상하고 오직 여래만이 상주불변(常住不變)함을 나타내기 위해 2월에 열반한 것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³⁹⁾

여기서 음력 2월이 춘양의 달, 즉 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기』 「월령」 중춘에서는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복숭아나무가 비로소 꽃을 피우고 꾀꼬리가 노래하며, 매가 변화하여 빠꾸기가 된다.”⁴⁰⁾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음력 2월은 실질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가 시작된 인도의 경우 새해를 보통 춘분 무렵에 시작하는데⁴¹⁾ 일반적으로 춘분은 음력 2월에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음력 2월을 정월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처의 탄생, 출가, 입멸이 모두 한 해의 시작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월 8일 혹은 4월 8일은 봄과 관련된 상징적인 날짜이지 반드시 부처가 태어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대 인도에서는 음력 2월과 3월 사이에 홀리 축제를 벌이는데 이것은 농신제(農神祭)의 일종으로 왕실과 농부들이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각종의식을 거행하며 그 중에는 왕실의 토지에서 왕이 밭의 고랑을 가는 의식을 벌이기도 한다.⁴²⁾ 이점은 당나라에서 음력 1월 맹춘길해에 선농제를 지내고 친경례를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음력 2월은 고

39) 『대반열반경』 권 제28 「사자후보살」 4. “二月名春，春陽之月萬物生長，種植根栽花果數榮，江河盈滿百獸孚乳，是時眾生多生常想，為破眾生如是常心，說一切法悉是無常，唯說如來常住不變。”

40) 始雨水，桃始華，倉庚鳴，鷹化爲鳩。

41) 자난 오브와에 지음/임정재 옮김, 『고대 인도의 일상생활』, 우물이 있는 집, 2004, 184쪽.

42) 자난 오브와에 지음/임정재 옮김, 앞의 책, 2004, 184~185쪽.

대 인도에서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파종의례가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동국세시기』 2월 초 하루에 “이 송편을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인다. 그래서 이 날을 속칭 노비날(奴婢日)이라고 한다. 농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렇게 노비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한다.”⁴³⁾라고 하여 한반도에서는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음력 2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은 탐돌이가 벌어지는 음력 2월이 농경 주기에 있어 정월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2월은 신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던 날로 생각된다. 이는 신라의 시조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신라의 시조묘 제사 날짜가 음력 2월인 경우가 다수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리이사금 2년과 미추이사금 2년에는 죄인을 크게 사면하기도 했다. 대사면이라는 것은 현재도 광복절과 같은 중요한 날에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예기』 「월령」 증춘조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감옥을 살펴서 질곡(桎梏)을 없애고 사략(肆掠)을 못하게 하게 하고, 옥중에서 송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⁴⁴⁾ 여기서 “감옥을 살펴서”라는 구절은 『여씨춘추』 「증춘기」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고유(高誘)는 “성(省)이라는 것은 가볍고 미미한 죄를 범한 자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⁴⁵⁾ 이를 통해 『예기』 「월령」에서도 음력 2월에 죄인을 사면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벌어지는데 부여의 경우 영고에 “斷刑獄, 解囚徒.”이라고 하여 형옥을 중단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사면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여의 영고는 은정월에 벌어지는 은나라의 정월은 동지가 있는 음력 11월이었다. 이는 동지부터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동국세시기』에서는 이를 작은 설(亞歲)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부여의 “斷刑獄, 解囚徒.”풍습의 의미에 대해 서영대는 “신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해의 혼돈상태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천의례를 통해 갱신된 새로운 질서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⁴⁶⁾라고 하여 신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라에서 음력 2월에 시조묘에 제사를 지낸 것은 신라에서는 왕이 즉위한 해를 즉위 1년으로 하는 “즉위칭원을 하였지만 유년기원례(踰年紀元禮)로 시조묘 국가제사를 거행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점에 대해 김일권은 “이처럼 신라의 건국 초기에는 유년(踰年) 2월에 자신의 등극을 시조묘에 고하여 왕권의 신성과 정통을 확립하고 있었고, 이 때의 2월은 바로 자신들 시간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첫달이었다고 볼 수 있지

43) 饋奴婢如齒數, 俗稱是日爲奴婢日. 東作伊始故饗此屬云.

44) 『禮記』 「月令」 仲春. “命有司省囹圄, 去桎梏, 毋肆掠, 止獄訟.”

45) 『呂氏春秋』 「仲春紀」 高誘註. “省之者, 赦輕微也.”

46) 서영대,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 시민강좌』 45, 일조각, 2009, 14쪽.

47) 김일권, 「신라 금석문과 「신라본기」의 천문역법사 고찰」, 『신라문화』 42, 2013, 169쪽.

않을까 한다. 이렇게 건국 초기 신라는 2월을 시간 기원으로 보는 2월 세수 측면이 엿보인다.”⁴⁸⁾라고 하여 2월을 세수로 여겼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라에서 음력 2월에 시조묘를 제사지낸 것은 신라에서 음력 2월을 세수로 여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신라에서는 음력 2월이라는 날짜가 한해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조묘에가서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풍년을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신라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한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해와 달에 제사를 지냈지만 아울러 음력 2월도 농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탑돌이가 벌어지는 음력 2월은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시기로 만물의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인 출생, 출가, 입멸의 날을 시작을 상징하는 2월에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탑돌이가 비록 개인의 복을 비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경의례적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행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탑돌이의 배경

이렇게 흥륜사의 탑돌이는 이미 신라시대에도 단순한 불교행사라기보다는 농경의례적 성격을 가진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흥륜사는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천경림이라는 숲에 지은 것으로 토속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금교동 천경림이다.[지금의 흥륜사로 금교는 서천교니 속어로 솔다리라고 전한다. 이 절은 아도가 비로소 터를 잡은 것인데,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법흥왕 정미년에 시작하여 을묘년에 크게 역사하여 진흥왕 때에 낙성하였다]⁴⁹⁾

진흥대왕 즉위 5년 갑자에 대흥륜사를 이룩하였다.[국사(國史)와 향전(鄉傳)에 의하면 실상 법흥왕 정미에 처음으로 터를 닦고 21년 을묘에 크게 천경림의 나무를 베어서 공역을 시작하였는데 기둥과 들보에 쓸 재목을 다 거기서 넉넉히 취하였고 추춧돌과 석감(石龕)도 다 갖추었다. 진흥왕 갑자에 절이 낙성되었으므로 갑자라고 한 것이니 승전(僧傳)에 7년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⁵⁰⁾

48) 김일권, 앞의 논문, 169쪽.

49) 『삼국유사』 「흥법」 아도기라. “一日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我道始基而中廢, 至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王畢成].”

50) 『삼국유사』 「흥법」 원종흥법 염족멸신. “眞興大王即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按國史與鄉傳, 實, 法興王十四年丁未始開, 二十一年乙卯大伐天鏡林, 始興工, 梁棟之材, 皆於其林中取足, 而階礎石龕皆有之, 至眞興王甲子寺成. 故云甲子, 僧傳云七年誤].”

위의 두 기록을 통해 흥륜사가 천경림의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만든 사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전통신앙의 자리에 다른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시설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서로마제국 멸망이후 게르만족에대한 선교과정에서 기존의 게르만족의 성소에 교회를 세우고 스페인의 침략이후 멕시코 와하카에 들어온 프란시스코 및 도미니크 수도승들이 여신의 신전을 부수고 카르멘 성녀의 교회를 세우고, 잉카의 태양의 신전에는 산토도밍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기존의 성소 혹은 신전에 다른 종교의 시설물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일월제가 떨어진 곳이 문열림이라는 숲이라는 점과 김알지 설화가 계림이라는 숲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숲은 신라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이었다. 이런 점은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도가 말하기를 “저에게 천경림(天敬林)을 주시면 곧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이곳은 비보(裨補)로 전해온 바로서 만대에 이어온 것입니다. 위아래가 함께 받드는데 어찌 승려에게 주겠습니까?” 하였다. 아도가 말하기를 “상제(上帝)께서 저에게 명하였으니 이 땅은 허락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⁵¹⁾

『도리사아도화상사적비(桃李寺阿度和尙事蹟碑)』

위의 기록은 조선 효종6년(1655)에 만들어진 경상북도 선산 도리사(桃李寺)에 있는 아도(阿道)의 비문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천경림을 신하들이 “비보(裨補)로 전해온 바로서 만대에 이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보(裨補)’는 신라 말 도선국사의 풍수지리학에서 ‘지리적으로 이롭지 못한 처소에 절 같은 것을 세워 지기(地氣)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러나 비록 위의 비석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아도가 왔을 때는 아직 신라에 절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설에 따른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에 비보사사(裨補寺社)라는 말의 의미가 “국가와 왕실이 번창하고 태평하도록 기원하기 위하여 세운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비보(裨補)와 유사한 의미로 ‘국가와 왕실이 번창하고 태평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경림은 『삼국유사』에서는 ‘天鏡林’이라고 쓰고 『도리사아도화상사적비』에서는 ‘天敬林’이라고 쓰고 있어 ‘경’이라는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기(誤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광식은 천신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진 곳으로 보고 있다.⁵²⁾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모두루모지』에서 ‘日月之子’라

51) 阿度日與我天敬林則病可瘳王問諸臣皆曰此乃裨補所流傳萬葉上下共之奚與僧阿度日上帝命我此地不可不許

52)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62~163쪽.

는 표현이 『광개토왕릉비문』에서 ‘皇天之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신라의 경우도 ‘日月’이 곧 ‘천신(天神)’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日月’을 제사지낸 문열림(文熱林)이 천신에 대한 제사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³⁾

그런데 ‘天鏡’이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시(詩)들을 보면 달 또는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당나라 때 송지문(宋之間)은 《游禹穴回出若邪》라는 시에서 “石帆摇海上, 天鏡落湖中.”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天鏡’은 ‘달’을 가리키는 말이며,⁵⁴⁾ 이백(李白)의 시 《渡荊門送別》의 “月下飛天鏡, 雲生結海流.”에서도 ‘天鏡’은 ‘달’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그림 2〉 흥륜사(천경림) 추정 위치

한다.⁵⁵⁾ 또한 천경(天鏡)에서 경(鏡) 즉 거울은 무당의 의례용 도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로서 밝은 빛을 내는 달빛이라는 의미하기도 한다.⁵⁶⁾ 이러한 점들을 통해 추측해보면, 천경림(天鏡林)이라는 곳은 일월(日月)로 대표되는 천신(天神)

이 아니라 특별히 달을 숭배한 곳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록에서는 신라가 달을 별도로 숭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천경림으로 추정되는 지역⁵⁷⁾과 가까운 신라의 도성이름을 월성(月城) 또는 반월성(半月城)이라고 한다던가 도성 안에 시설물 중에서 누각 중에는 월산루(月山樓)가 있고 관청 중에는 월정당(月正堂)이 있는 등 ‘月’자가 들어간 것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신라의 도성에서 ‘月’이 들어간 이름들이 있는 것은 신라에서 달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달을 모시는 성소가 천경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열림이 천신으로서의 해와 달을 함께 모시고 제

53) 김명준, 「신라 일월제의 양상과 변화」,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355~359쪽.
 54) 薛迎春, 「古诗文中“月”的别称词浅析」, 『重庆职业技术学院学报』, 第41卷 第1期, 2005年 1月, 1쪽
 55) 侯传湘, 「古诗教学应紧贴文本语辞世界——对《渡荆门送别》教学的反思」, 『中学课程辅导(教师教育)』, 南京市钟英中学, 2019-02-10, 2쪽.
 56) 진 쿠퍼/이윤기 옮김, 『세계문화사정사전』, 까치, 2001, 213쪽.
 57) 대부분 연구에서 흥륜사 및 천경림의 위치는 그림 2(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의 경주공업고등학교 자리로 보고 있다.(이근직, 「신라 왕경의 교량지 위치 재고」, 『경주문화논총』 3, 경주문화원, 2000, 36쪽)

사하는 곳이라면 천경림은 이 중에서 달만을 별도로 모시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달에 대한 신앙이 신라 도성의 이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천경림에서 신라인들의 달 숭배 혹은 달 신앙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풍요를 상징하는 천체(天體)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농민들은 오늘 날에도 새로운 달이 올라올 때 씨를 뿌리고 나뭇가지를 친다던가 야채를 수확하는 일은 달이 기울었을 때 하며,⁵⁸⁾ 피그미족은 우기(雨期)가 오기 전에 신월제(新月祭)를 하는데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피그미족은 달을 “생식의 원리 풍요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⁵⁹⁾ 이런 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동국세시기』 「상원(上元)」조에는 “달의 윤곽과 네 방향의 두께를 보고 각각 그 방향에 해당하는 지방의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하는데, 그 둘레가 두터우면 풍년이 들고 얇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며 이러한 예측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⁶⁰⁾라고 하고 있다. 또한 황소의 뿔은 풍요를 상징하는 대모신의 표장이며, 신석기시대 문화에서 소의 형태로 된 도상(圖像) 혹은 우상(偶像)은 모두 풍요의 대여신이 현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황소의 뿔이 초승달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⁶¹⁾ 이렇게 많은 문화권에서 달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왕성을 월성(月城)이라고 한다거나 천경림에 홍륜사를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던가 하는 것은 모두 달과 풍요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홍륜사가 세워진 천경림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달과 관련된 성소(聖所)로 여기던 곳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곳은 특히 신라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곳에 최초의 불교 사찰을 만드는 것을 신하들이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그러나 아도에 의해 천경림에 홍륜사가 만들어졌다고 그 성격이 단숨에 불교적인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경우를 보면 기독교가 비록 게르만 사회에 전파되었지만 사람들은 본래의 성소를 자신들의 전통신앙의 성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시대에도 조선 정부가 성황신앙을 무속적인 의식에서 유교적인 의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해도 사실상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륜사의 경우도 쉽게 신라의 전통신앙적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후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통신앙적 성격이 결국 신라의 홍륜사 탑돌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본 것처럼 홍륜사에서 매년 벌어지는 탑돌이가 벌어지는 시기는 농경이 시작하는 시기

58)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234쪽.

59)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앞의 책, 236쪽.

60) 『東國歲時記』 「上元」.“又占月出時形體大小湧浮高低, 又以輪郭四方厚薄占四方年事, 厚則徵豐薄則徵凶無少差忒。”

61)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앞의 책, 237쪽.

62) 이차돈이 순교한 것도 천경림에 홍륜사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최광식, 앞의 책, 255-256쪽.)

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복회(福會)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홍륜사에서 벌어지는 탑돌이는 불교 의식이 아니라 민간신앙과 결합된 기복적 성격의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모두 직접적으로 달에 대한 신앙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천경림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전통신앙이 탑돌이에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와 신라의 전통신앙이 습합된 형태의 신라 홍륜사 탑돌이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아가 홍륜사에서 벌어진 신라의 탑돌이는 시기상으로 단순한 개인의 복을 비는 행사가 아니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라시대 홍륜사에서 2월 8일~2월 15일에 벌어지는 탑돌이는 단순한 불교의식이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 일정부분 관련된 행사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홍륜사가 가지는 성격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홍륜사는 천경림이라는 숲에 만들어진 신라 최초의 사찰로서 이차돈이 순교하게 된 계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법흥왕 때 신하들은 홍륜사가 있는 천경림에 불교 사찰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데 이는 이곳이 신라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인들은 숲을 신이 임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일월제가 문열림이라는 숲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발견된 곳이 계림이라는 숲이라는 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이곳이 어떤 신과 관련된 성소(聖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천경(天鏡)’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통해 추측해보면 이곳이 달과 관련된 성소(聖所)였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경림에 홍륜사가 세워졌어도 완전히 전통신앙적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⁶³⁾ 특히 『삼국유사』 「김현감호」에서는 홍륜사에서 벌어지는 탑돌이를 복회(福會)라고 했는데, 이는 곧 홍륜사의 탑돌이가 기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홍륜사에서 벌어지는 신라의 탑돌이는 특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은 풍요를 상징하는 천체로 프랑스, 피그미족 등의 풍습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의 경우 『동국세시기』 상원조에 달의 모습을 가지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매년 신라 홍륜사에서 벌어지는 탑돌이가 벌어지는 시기는 석가모니 부처의 출가일과 열반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아울러 농경의례적 성격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음력 2월은

63)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유교국가를 표방하며 기존의 무속적 성격을 가진 성황신앙을 유교적인 것으로 바꾸려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게 된다.

인도 및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세시기인 『동국세시기』에서 2월 초하루를 노비일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력 2월은 농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보면 신라에서 음력 2월에 탐돌이가 벌어진 것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의 출가일과 열반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흥륜사의 탐돌이가 불교의식에서 벗어나 세시풍속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화가 된 것은 천경림을 중심으로하는 신라의 기복적 전통신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신라 흥륜사의 탐돌이는 본래 성소였던 천경림에서 기도하는 의식과 불교식 탐돌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경림이라는 성소에 흥륜사를 세움으로써 기존 전통신앙은 자연스럽게 불교신앙으로 대체되며 천경림에서 벌어지던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탐돌이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천경림이 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과 달이 풍요를 상징한다는 점, 탐돌이가 벌어지는 시기가 부처의 출가일과 열반일과도 관련있지만 동시에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들을 볼 때 흥륜사의 탐돌이는 불교 행사이지만 전통적인 농경과 관련된 전통신앙적 요소가 들어간 행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삼국유사』
- 『삼국사기』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신증동국여지승람』
- 『보한집』
- 『태평광기』
- 『대당서역기』
- 『毗尼日用切要香乳記』
- 『대동운부군옥』
- 『대반열반경』
- 『예기』
- 『여씨춘추』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 저서

- 『月刊 法輪』 106호, 1977, 法輪會.
-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 우인보, 2013, 『탑과 신앙』, 도서출판 해조음.
- 자난 오브와에 지음/임정재 옮김, 2004, 『고대 인도의 일상생활』, 우물이 있는 집.
- 中村元 저/金知見 역, 2016, 『불타의 세계』, 김영사.
- 진 쿠퍼/이윤기 옮김, 2001,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 천득염·최정미·염승훈·김소영, 2018,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심미안.
- 최광식, 2007,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3. 논문

- 김복순, 2002, 「興輪寺와 七處 伽藍」,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영준, 2019, 「신라 일월제의 양상과 변화」,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일권, 2013, 「신라 금석문과 「신라본기」의 천문역법사 고찰」, 『신라문화』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준오, 천득염, 2011,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 박은애, 2011,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條에 나타나는 신라 탑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서영대, 2009,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 시민강좌』 45, 일조각.
- 薛迎春, 2005年 1月, 「古詩文中“月”的別稱詞淺析」,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第41卷 第1期.
- 염중섭, 2017, 「불교의 탑돌이 기원과 한국적 전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

상연구원.

이근직, 2000, 「신라 왕경의 교량지 위치 재고」, 『경주문화논총』 3, 경주문화원.

이철현, 2014, 「월정사 탑돌이의 전승과 현재」, 『한국선학』 37, 한국선학회.

侯传湘, 2019-02-10, 「古诗教学应紧贴文本语辞世界——对《渡荆门送别》教学的反思」, 『中学课程辅导(教师教育)』, 南京市钟英中学.

국문초록

『삼국유사』 「김현감호」에 의하면 신라 풍습에 매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홍륜사의 탑을 도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탑돌이는 홍륜사라는 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교의 탑돌이 행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홍륜사에서 탑돌이가 벌어지는 시기는 불교에서는 음력 2월 8일을 부처의 출가일로 삼고 있으며 2월 15일은 열반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인도와 한국 모두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홍륜사는 천경림이라는 숲에서 만들어진 신라 최초의 불교 사찰인데, 이 지역은 신라인들이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던 곳으로 보인다. 천경림이 정확히 어떤 성스러운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경(天鏡)이라는 말이 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가까이에 있는 신라의 도성도 월성(月城), 반월성(半月城)이라고 하는 등을 보면 달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달은 풍요와 관련이 있는 천체이다. 또한 프랑스 및 피그미 족과 한국의 정월 보름 풍습을 보면 모두 풍요와 관련된 의식이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신라에서는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고 천경림이 달과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신라가 농경사회인 점을 생각한다면 신라에서 달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관련이 있는 천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라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신라인들이 성스러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천경림에 홍륜사를 세웠지만 기존의 전통신앙을 신라인들이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가 공인된 초기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전통신앙이 한동안 기독교 신앙과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전통신앙적 요소가 불교의식인 탑돌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홍륜사에서 2월 8일부터 2월 15일에 벌어진 탑돌이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신라의 전통신앙을 받아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적 성격이 일부 들어간 의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홍륜사, 탑돌이, 신라, 복회, 천경림

Abstract

The aspects and background of Circling the pagoda of Heungnyunsa Temple

Kim Yongjoon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According to the chapter 「Kim Hyeon Gamho」 in 『Samguk Yusa』, Silla custom had an annual event to tour the tower of Heungnyunsa Temple from February 8 to February 15. The pagoda circling custom took place at a temple called Heungnyunsa, so they can be seen as a typical Buddhist circling the pagoda event. However, the time when circling the pagoda takes place in Heungnyunsa Temple is the day of Buddha's marriage on the eighth day of the second lunar month. Heungnyunsa Temple was the first Buddhist temple of Silla built in a forest called Chenkyung forest. This area is seen as a sacred place by the Silla people though it is not certain that the forest is a sacred place, however, the meaning of “ChenKyung (天鏡)” often represents the moon and the nearby capital of Silla is also known as Wolseong(月城) and Banwolseong(半月城), which are related to the moon and it may seem relatable to sacred place. This moon is a celestial body that is related to affluence. Also, if you look at the customs of the French and Pygmies and the full moon of Korea, there are rituals related to affluence. These points show that Silla regarded the moon as a symbol of affluen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Chenkyung forest is related to the moon.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illa is an agrarian society, the moon is a celestial body associated with a good harvest of farming in Silla. That's why King Beop Heung of Silla officially recognized Buddhism and founded Heungnyunsa in ChenKyung forest, a place where the Sin Lines are sacred, the new line would not have completely abandoned the existing telegraph office. In fact, it seems to be possible even in the early European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was accredited, because it is possible to see traditional beliefs coexist with Christianity for a while.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is traditional belief of Silla influenced the circling the pagoda, the Buddhist ritual, and turned it into a folk game to pray for a good year.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circling the pagoda, which took place on February 8th and February 15th at Heungnyunsa, was not just a Buddhist event, but a ritual of praying for a good year as well as an individual's blessing by receiving the traditional beliefs of Silla.

Keywords

Heungnyunsa Temple, circling the pagoda, Silla, bok-hoi, Chenkyung forest